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4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선거보도량 늘고 정책보도 줄었다
• 날 짜	2022년 02월 23일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선거보도량 늘고 정책보도 줄었다 여전히 양강 후보 집중 보도…과연 공정한가

모니터 기간	2022년 02월 14일(월) ~ 2022년 02월 20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월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바빠졌다. 또 대선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주요 공약이 공개되어 각 후보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받았다. 지역신문은 후보들 공약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빠진 것에는 주목했지만 지역 입장에서 10대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모니터 기간 청년세대 설문조사 통한 대선 인식과 후보 평가, 부산공약 집중 점검 등 기획 기사가 보도되어 긍정적이었던 반면, 공식선거가 시작되었음에도 오히려 ‘이재명-윤석열’ 양강 후보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였다.

선거보도량 늘고 지역신문의 기획보도 눈에 띄어 지역방송은 대선 의제 여론화 역할 못해

모니터 기간 총 선거보도 건수는 125건으로 지난 주 93건보다 32건 늘었다.(표1) 신문 94건(국제신문 46건, 부산일보 48건), 방송 31건(KBS부산 8건, 부산MBC 11건, KNN 15건)으로 특히 방송이 지난 주 15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식 선거개시로 늘어난 선거 관련 소식이 반영된 것이다.

여전히 선거 유세 행보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았지만, 국제신문은 청년세대 인식 설문조사, 유권자관심 공약 점검을, 부산일보는 부산현안 ‘딥’풀이 등 기획 기사를 실어 유권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제신문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보상책 점검을, 부산일보는 ‘경부선 지하화’ ‘부산금융중심지 개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 입장과 평가를 보도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던지고 보자’식 지역 공약, 되레 불신만 키운다>에서 윤석열 후보 유세에서 발언한 ‘가덕신공항 임기중 완공, 대구신공항 3.8km 활주로’에 대해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지역방송은 보도량은 증가했지만 후보·정책을 검증하고 해설하는 기획은 없었고 후보 유세 행보 위주로 보도했다. KBS부산은 보도량도 8건으로 제일 적었고 유세행보 단신 뉴스가 대부분으로, 지역 공영방송 역할에 소홀했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9	31	60	리포트	3	6	6	15
의견/칼럼	8	11	19	단신	5	6	6	17
기획/해설	8	6	14	기획	0	0	0	0
인터뷰	0	0	0	인터뷰	0	0	0	0
기타(사진기사 등)	1	0	1	기타	0	0	0	0
합계	46	48	94	합계	8	11	12	31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 유형별 건수

정책·검증보다 후보 행보·단일화 여부에 관심 치중

양강 후보 집중 보도 여전...어떤 후보 출마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대선보도를 주제 및 내용으로 분류하면 후보·정당 행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책·공약보도가 24건, 후보와 정당의 선거전략 보도가 17건으로 보도됐다.(표 2) 정책 기획 보도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보도는 지난 주 28건에 비해 오히려 줄고 후보와 선거전략 등 후보 따라가기식 보도는 더 늘었다. 본격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정책보다는 선거전략, 공방 위주의 행보 기사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정책·공약	7	12	0	2	3	24
후보·정당 행보	13	10	6	7	6	42
선거전략	11	0	2	2	2	17
갈등·공방	2	3	0	0	0	5
기타(선거 사무 등)	5	6	1	1	1	14
유권자 정책제안 운동	4	1	0	2	0	7
선거판세·여론조사	5	6	0	0	1	12
후보자검증 및 후보비판	1	2	0	0	0	3

<표 2> 대선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후보 언급도 이재명-윤석열 양강 후보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표3). 두 후보의 부산 방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14명 후보가 입후보하여 10대 중점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보도는 두 후보 비중이 69.6%로 더 초점이 모아졌다. 한편 부산일보는 안철수 후보 언급이 타 언론과 비교해 많았는데 윤석열-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여부 관련한 분석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언급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이재명	31	25	3	3	5	67
윤석열	34	33	3	3	4	77
심상정	10	7	1	1	0	19
안철수	19	21	1	2	0	43
김재연	0	0	0	0	1	1

〈표 3〉 기사 내 언급 후보 빈도

정당 언급 비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치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4) 양당의 언급 비중이 전체 76%를 차지한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조차 <선거전 첫날, 이재명-윤석열 '부산 빅뱅'>(부산MBC, 2/15), <막 오른 대선, 이재명.윤석열 '부산' 공약>(KNN, 2/15) 이라며 두 후보 위주로 보도했고, <여야 휴일 맞아 시내 곳곳에서 집중 유세>(KBS부산, 2/20)와 같이 여야 행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유세만 보도하는 식으로 편향을 보였다.

단순언급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32	27	6	7	7	79
국민의힘	37	33	7	6	6	89
정의당	10	5	1	1	0	17
국민의당	16	16	0	2	0	34
진보당	0	0	0	1	1	2

〈표 4〉 기사 내 언급 정당 빈도

후보별 10대 주요공약 분석도 양강 후보 치중 지역 입장에서 주요 공약 평가 제대로 안 해

후보 보도량 뿐 아니라 내용에도 아쉬움이 있다. 대선후보 10대 주요 공약이 공개되면서 후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해졌지만 지역신문은 유세 행보에 이어 10대 공약 점검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위주로만 비교·분석했다. 부산일보는 <균형 발

전' 뺀 윤석열, 이재명은 4번째 순위로 제시>(2/14)에서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을 아예 명시했고 국제신문은 <입으로만 외친 '균형발전'...국가사업 의지 공약에 담아야>(2/15)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핵심 공약을 전하기는 했으나 10대 공약 전문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공개했다.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10대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균형발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방송은 보도하지 않았다.

4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제 23677 호 대선 D-23 부산일보

'균형 발전' 뺀 윤석열, 이재명은 4번째 순위로 제시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

1호 공약 모두 '코로나 극복'

이재명
전국 5개 메가시티 특화 발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윤석열
직속 '코로나 특별본부' 설치
청와대 해체로 대통령실 개혁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윤 후보 10대 공약에선 균형발전 관련 의제가 빠져있다. 10대 공약은 후보가 집권 시 중점을 두고 이행하는 약속으로 후보가 인식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윤 후보는 한국 지방신문협회(한신협) 인터넷(부산일보 1월 26일 자 1·4면 보도)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양극화'만큼 심각한 현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에선 관련 의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균형발전 정책을 비교적 상위 순서로 제시한 이 후보 측은 10대 공약에서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 발전시키는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과 전략산업 육성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적극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

의지를 정식 공약으로 명문화했다. 공약 1호는 양 후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협력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관'을 공약 1호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안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에 연한 패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위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

비하는 경제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개헌론에 붙을 지피고, 연 1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윤 후보는 공약시 정의대를 해체하겠다고 대통령실 개혁안을 10대 공약에 담았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코-안보 공약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악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우선 이행에 초점

<그림1> 부산일보 2월 14일 4면 '양강 후보 10대 공약 분석' 기사

국제신문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대선D-22 3

입으로만 외친 '균형발전'... 국가사업 의지 공약에 담아야

■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충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동맹국가학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회개혁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여야 대선후보 10대 공약

순위	이재명	윤석열
1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경제적 기본권을 보충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스마트하고 공정한 세 배는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동맹국가학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과학기술 추격기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청년(이)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8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당당한 외교, 든든한 안보
9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회개혁	실용가능한 탄소중립 원천 기술개발
10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중장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윤석열 국민의힘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한 세 배는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기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든든한 안보
실용가능한 탄소중립 원천 기술개발
중장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주요 대선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여야 4당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주장했던 만큼 지방과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이 후보는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업을 '지역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기 정부에서도 이들 사업들이 주요 국정 과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들이 사업지와 관계 없이 국가 사업이면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균형발전 의지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의 10대 공약 키워드는 '코로나 극복'이었다. 여야 4당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내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 윤 후보는 방역조치 기간

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위임과 동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 효과 적용과 더불어 자영업자 영입기간 제한 폐지 등, 심 후보는 특별재난지역 배후와 특별재난지역 대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각각 미래 성장전략,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워 차별화

도 이 후보는 인기 내 정 국민 대상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그림2> 국제신문 2월 15일 3면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기사

유권자 의제 제안 무관심 속

국제신문 청년세대 770명 인식조사 기획 눈에 띄어

또한 모니터 기간에는 시민사회의 ‘이주민 공약 제안’ ‘기후위기 공약 제안’ ‘문화 분권 관련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항만공사 지방이양’ 등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부산MBC가 이주민 공약, 항만민영화 중단 등 2건,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문화분권 공약을 보도한 것 외에 유권자 움직임을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언론에서는 대선 ‘스윙 보터’를 강조하며 PK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도해왔는데, 정작 유권자의 요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표’로만 대상화하는 모양새였다.



〈그림3〉 국제신문 2월 16일 5면 ‘대선 부산MZ 세대 속마음’ 기획 기사

이런 경향 속에 국제신문은 14일부터 ‘대선, 부산 MZ 세대 속마음’을 기획 보도해 눈에 띄었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와 부산지역 4개 대학 학보사와 협업하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산지역 대학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것이다. 당사자인 청년들과 연계하여 대선 후보에 대한 인식과 공약 평가, 그리고 청년이 바라는 공약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단순한 지지를 벗어나 일자리, 청년층 주거문제, 젠더,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묻고 특히 ‘지역’ 청년의 고민을 들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획으로 평가한다.

2월 14일 1면 <부산 MZ 31% “호감 후보 無” 46% “일자리 시급”>
2월 14일 3면 <이 '대장동. 욱석' 윤 '김건희.무능'...MZ 혼돈 비호감 꼬리표>
2월 16일 5면 <“청년 공약 불충분” 63.4%...실효성·양적 부족 이유 꼽아>

△ 모니터기간 국제신문 ‘대선 부산MZ 세대 속마음’ 보도목록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았다. 후보 행보와 갈등·공방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극 보도해야 할 때다.